

불펜투수 장원삼 "선발보다 긴장감 2배…새로운 재미"

〈삼성〉

베이스볼 피플

불펜 10경기서 3홀드·방어율 2.38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적응 끝나
욕심 낼 게 없다…승리에 힘 보탤뿐"

투수에게 마운드란 특별한 곳이다. 9명의 선수가 한데 뒤엉키는 그라운드에서 유일하게 홀로 독립된 공간이 허락된 장소다. 흔히 우리는 '마운드에 올라 선 투수'라는 식의 표현으로 투수의 마운드 위 모습을 주목한다. 그러나 단순히 마운드 위 활약뿐만 아니라 그 독립된 공간을 향해 뛰어가는 과정까지 중요한 투수들이 있다. 바로 팀의 든든한 허리, 불펜진이다.

삼성 장원삼(34)은 최근 들어 마운드를 향한 발걸음이 유독 바빠진 투수다. 시즌 초 팀 5선발로 낙점되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으나, 최근에는 불펜으로 보직을 바꿔 사자군단의 허리를 지키고 있다.

프로 12년 차인 그는 마운드를 향해 뛰는 것보다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더 익숙했던 투수다. 프로 데뷔 후 줄곧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116승을 거뒀다.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한 시즌이 7시즌이나 되고, 2012년에는 다승왕(17승)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불펜'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부여 받은 그는 어색한 자리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최근 10경기서 3홀드 방어율 2.38의 성적을 남겨 팀 반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필승조 혹은 추격조 역할까지 맡으며 짧게는 1이닝, 길게는 3이닝 이상을 소화해 삼성의 새로운 '마당쇠'로 거듭났다. 쉴 틈 없이 마운드로 뛰어 올라가기 바쁜 이 베테랑 투수에게 새로운 보직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요즘 투수들 중 가장 바빠 보인다.

"그래 보이나.(웃음) 아무래도 불펜서 매일 대기하다보니 선발로 뛸 때와는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다. 언제 경기에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불편함은 없나.

"선발로 등판할 때는 몸을 길게 푸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 준비를 빨리 마치려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몸이 조금씩 적응을 하는 모습이다.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한 지 한 달이나 흘렀다. 적응하고 나니 큰 불편함은 없다."

-구체적으로 등판준비는 어떻게 하나.

"나는 지금 필승조, 추격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고 있다. 생각보다 일찍 마운드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몸을 1회부터 푼다. 등판할 조짐이 보이면 정현욱 코치님이 일찌감치 얘기를 해주신다. 상황에 맞춰 마운드에 올라갈 준비를 한다."

-마운드에 올라가는 간격이 유독 짧다.

"코치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니 큰 문제는 없다. 투구수 30개를 넘기면 '내일은 하루 쉬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 불펜 보직을 맡은 뒤로는 완급조절을 한 적이 없다. 매 경기 전력을 다 한다. 그렇게 던져도 2일 연투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마운드에 오르나.

"사실 불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도 매번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떨린다.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 선발로 던질 때보다 2~3배는 더 긴장이 된다.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무슨 공을 던질지 머리에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인드컨트롤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실점하지 않고 위기상황을 막으면 그만큼 짜릿할 수가 없다. 불펜투수만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재미더라."

-시즌 시작은 선발이었다. 한 번 더 욕심을 낼 생각은 없나.

"선발로 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 위치에서 내 공을 던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목표는 없나.

"전혀 없다. 나는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올림픽 우승을 다 해봤다. 개인기록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더 이상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욕심은 없다. 팀 1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FA 재취득 또한 마찬가지인가(지난해 등록일수 부족으로 올해 FA 재취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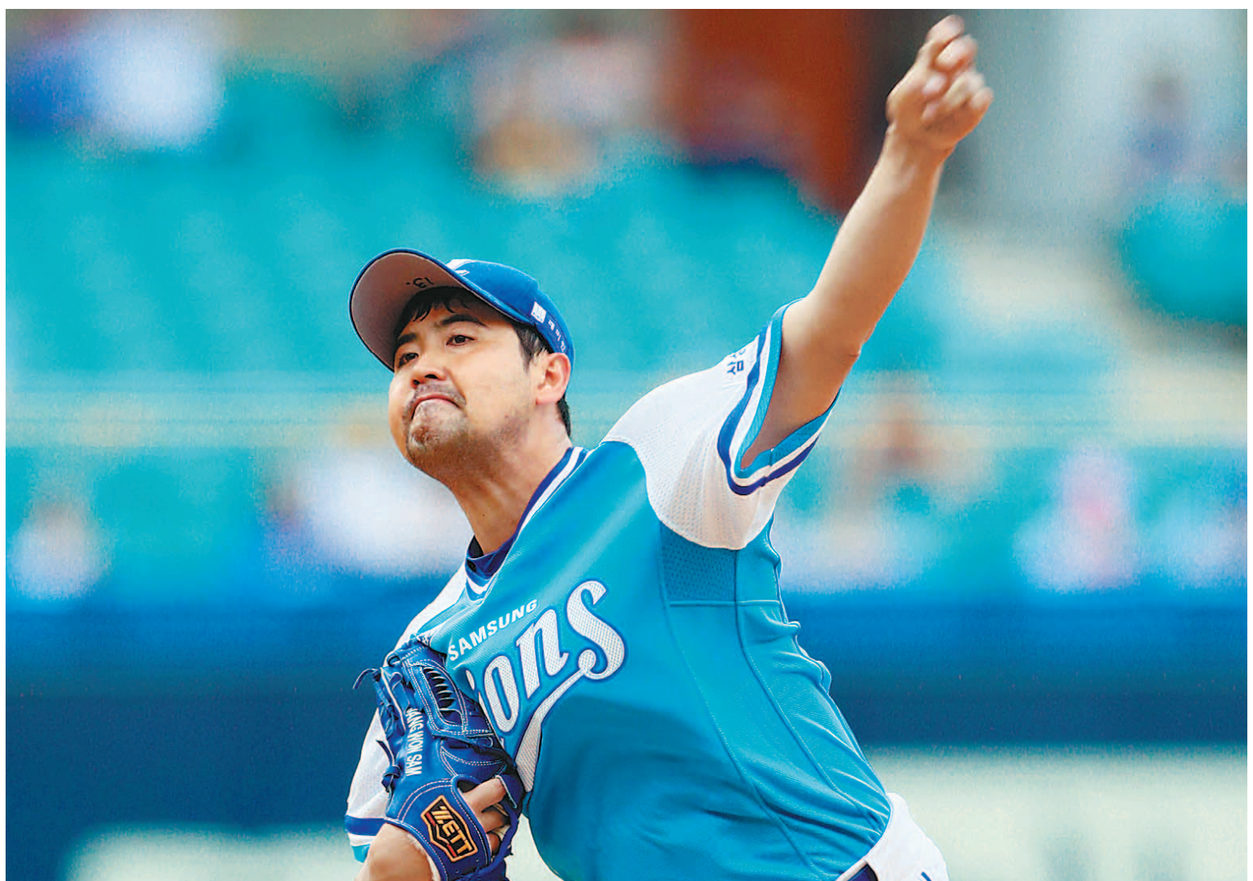
"비슷한 맥락이다. 나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이라 생각한다. 안 좋은 모습으로 계약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 올해와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기회는 또다시 올 것이라 본다."

-소속 팀 해체, 트레이드, FA 등 참 다사다난한 야구인생을 살았다.

"나만큼 '경험'이 많기가 쉽지 않다.(웃음) 특별히 마음고생을 한 적은 없다. 오히려 야구 안목을 키우는데 모두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 덕분에 우승도 하고 대표팀도 간 것 아니겠나."

-후배들이 가장 조언을 바라는 선배일 것 같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 팀 투수들은 아직 젊다. 의욕은 모두 넘치지만 경험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모두 좋아질 자원들이다. 나는 그저 후배들이 1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뿐이다. 그게 베테랑의 '말 없는 조언' 아니겠나."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전성기 KBO리그의 '선발 3대장' 중 1명으로 꼽힌 장원삼이지만 이제 삼성의 불펜투수로 보직이 바뀌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볼 배합은 투수와 포수의 하모니다. 누군가는 '볼 배합은 허상'이라고 평가절하를 내리지만 좋은 포수가 우승을 만드는 것도 현실이다. 스포츠동아DB

정답은 없다…투수·상황·타자 따라 매순간 수싸움



조범현의 야구學

볼 배합의 세계 〈上〉

"파울 타구보고 타자 타이밍 뺏을수도
볼 배합 능통한 국내 1인자는 박경완"

경기 내내 공수를 주고받는 야구는 수싸움의 연속이다. 상대의 심리를 꿰뚫으면서도 자신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종목이 바로 야구다. 그리고 이러한 수싸움의 첨단에 놓여있는 대목이 바로 '볼 배합'이다. 타자를 잡아내기 위한 투구 뒤엔 늘 볼 배합이 자리하고 있다. 포수 출신의 조범현 전 감독은 "볼 배합엔 정답이 없다"고 정의를 내리면서도 "현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해야하는 것이 바로 볼 배합"이라고 역설했다. 볼 배합의 세계에 대해 야구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 전 감독이 답했다.

Q : 볼 배합이란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깊이에 대해선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반 팬들 역시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요.

A : 볼 배합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볼 배합에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속이 깊기 때문이죠. 먼저 볼 배합에 대한 기본 갈래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수 중심 배합, 상황 중심 배합 그리고 타자 중심 배합입니다. 투수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땐 기교파와 정통파로 나눌 수 있겠네요. 기교파 투수의 경우는 포수가 변화구와 제구력에 바탕을 두고 타자를 맞춰 잡는 패턴으로 볼 배합을 가져갑니다. 반대인 정통파의 경우엔 힘으로 밀어붙이는 볼 배합이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도 볼 배합은 달라집니다. 상황 중심 배합은 실례를 들어보죠. 주자 1루 시 병살을 유도하는 상황, 1루가 비어있는 상황, 주자 3루 시 희생플라이를 허용해선 안 되는 상황 등 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판단해 볼 배합을 결정해야합니다. 오늘은 타자를 중심으로 한 볼 배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Q : 타자 중심 배합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타자 유형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장타자/단타자, 당겨치는 타자/밀어치는 타자, 직구를 잘 치는 타자/변화구에 잘 대응하는 타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다음은 타자의 자세, 배트 그립 모양, 배트를 들고 있는 각도, 스트라이드 시 발의 위치, 몸의 중심 이동 분석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순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볼 배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파울 스윙에서의 결과 분석입니다. 같은 파울이라고 해도 타구방향에 따라서 다음 볼 배합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 파울타구에 따른 볼 배합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A : 오른손 타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겨쳐서 3루코치 박스 방향으로 라인드라이브성 파울타구가 나온다면 타자의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로 상대 타이밍을 뺏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1루코치 박스 방향으로 직선타구가 나온다면 타자의 타이밍이 다소 늦다는 증거죠. 이 경우엔 가급적 몸쪽으로 직구를 붙이면서 승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파울타구가 백네트 방향으로 간다면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땐 방금 던진 볼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그런데 볼 배합에 앞서 타자가 어떤 구종, 어느 코스를 노리는지 먼저 파악해야할 텐데요. 그 노림수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A : 앞서 몸의 중심 이동을 이야기했는데요. 경기를 하다 보면 타자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타자 속을 매번 알아차릴 수는 없는 법이죠. 이럴 땐 의도적인 볼 배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몸쪽 깊숙이 직구를 붙이거나 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던진 뒤 타자의 웨이팅 모습을 통해 노림수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만약 타자가 몸쪽 유인구성 직구에 반응해 팔이 앞으로 나온다면 직구 타격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구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죠. 이럴 땐 역으로 변화구를 던지면서 타이밍을 뺏어야합니다. 반대로 외곽 변화구에 타자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팔이 따라온다면 직구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화구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Q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볼 배합에 정통한 포수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KBO리그 원년부터 수많은 포수들을 보셨을 텐데요.

A : 아무래도 볼 배합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포수는 박경완(SK 배터리코치)이 아닌가 합니다. 박 코치 현역시절을 회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에 특징이 없었다는 겁니다. 포수는 일반적으로 볼 배합에 관한 특정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카운트엔 어느 볼을 많이 유도했는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박 코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앞서 언급한 타자의 유형과 자세, 성향, 타석에서의 움직임 등을 모두 파악하면서 볼 배합을 했던 포수였습니다. 쌍방울과 SK에서 제자로도 데리고 있었지만, 박 코치 속은 저도 모르겠더군요. 적군은 물론 아군도 속인 셈이죠. 또 한 명은 진갑용(소프트뱅크 코치)입니다. 상대타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둘 모두 소속팀의 수차례 우승을 괜히 이끈 것이 아닙니다.

정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